

## 품질경영시스템 평가결과 최고등급 획득

### - 평가 전문기관이 인증한 공공기관 최초 Level 7 품질수준 달성 -

안전품질실(실장 석종근)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시행한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운영수준 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Level 7(최고 Level 8)의 품질수준 등급을 인증 받았다.

주요평가 내용은 재단·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지속가능 경영전략 수립, 직원과 소통하는 인사문화 조성, 시공방법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순부채 조기상환을 위한 선로사용료율 개선, 방만경영 정상화 조기이행 등으로 안품질은 업무 전 분야에서 타 공공기관과 차별화된 핵심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문화 혁신 등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품질경영시스템(QMS) 평가' 제도는 한국표준협회의 계량화된 국제 성과지침에 근거한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경영책임·자원관리·제품실현·지속적개선에 대한 성숙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공단은 2013년(Level 6+) 대비 1단계 향상된 Level 7 인증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최고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최고 품질수준을 확보함으로써 해외철도수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명품철도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동해남부선 신경주 ~ 포항간 KTX 운행 위한 전기가압 개시

### - 전기가압 후 시설물 시험 거쳐 내년 3월 개통 예정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내년 3월 개통예정인 동해남부선 KTX 연결선 및 신경주~포항간 전 구간(연장, 38.7km) 전차선로에 지난달 30일 오전10시부터 열차운행시험을 위한 전기를 가압했다.

동해남부선 KTX 연결선 및 신경주~포항간 철도건설은 총사업비 12,125억원이 투입돼 현재 공정 92% 진행 중으로 전기가 가압되면 철도노선 내 시설물에 대한 1)사전점검, 2)시설물검증시험, 3)영업시운전을 거친 후 개통하게 된다.

- 1) 사전 점검 : 2014. 11. 26 ~ 12. 04(7일간)
- 2) 시설물검증시험 : 2015. 01. 06 ~ 01. 30(19일간)
- 3) 영업 시 운 전 : 2015. 02. 04 ~ 02. 28(25일간)

본부 관계자는 "전차선로에 전기가 공급되면 2만5,000V 특고압 전기가 흘러 가까이 가면 감전사고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인근 선로변 주민들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특히 전차선로 주변에서 대형 중장비 등을 이용한 작업 전에는 철도영남본부(051-664-5121)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호남고속열차 운행 위한 '기존선로 개량공사 완료 !'

### - 광주송정역 남쪽 선로 직선화로 속도향상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호남고속철도(오송 ~ 광주송정 구간)의 마지막 구간인 광주송정역 남쪽 기존선에 대한 개량 공사가 지난달 21일 마무리됨에 따라 호남고속열차 운영을 위한 기존선로 이설을 모두 완료했다.

선로개량 공사는 호남고속철도 하남역 ~ 광주송정역(연장 6.7km) 구간에 총사업비 2천238억 원을 투입해 기존 호남선 2개선을 동쪽으로 이설한 후(2014년 7월말 완료), 고속철도전용 2개선과 광주차량기지 입출고선 등 3개 선로를 신설하는 공사다.

이번에 완료된 구간은 광주송정역 남쪽 상행선으로 호남고속선 신설에 따라 S자형 급곡선의 기존노선을 고속선형에 맞춰 직선화해 고속열차 안전운행과 열차운행속도 향상효과가 있으며 호남 하행선은 지난달 7일에 이미 공사를 완료했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시험운행을 완벽하게 시행해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철도신호설비 개량으로 열차 안전운행 확보!

### - '14년 중앙선, 영동선, 태백선에 예산 35억원 투입 -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14년도 영동선, 중앙선, 태백선 등에 예산 35억원을 투입해 1)철도 신호설비를 개량공사를 완료했다.

본부는 우선 개량이 필요한 신호설비 개량을 위해 올해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중앙선 영주역 등 68개역에 기관사의 신호오인 등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2)열차자동정지장치 설치 ▲태백선 태백역 등 16개역의 3)선로전환기에는 강설 시에도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4)히팅(제설장비)장치와 5)밀착검지기 설치 ▲영동선 상정~미로간 상거건널목 등 20개 6)건널목 안전 설비(경보등, 차단기, 지장물검지장치 등)를 강화해 지역주민과 차량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내년에도 약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도신호설비를 지속적으로 개량,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1) 철도 신호설비: 열차와 차량의 안전 및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며, 현장 조건에 따라 다양한 안전시스템이 설치됨
- 2) 열차자동정지장치(ATS : automatic train stop system, 自動列車停止裝置): 자동열차정지장치. 열차가 정지구역에 접근할 때 적당한 위치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동력차운전실 내에서 경보를 해주며, 일정시간 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구역을 진입하는 열차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제동장치를 동작시켜 열차를 정지시킨다.
- 3) 선로전환기(線路轉換器): 하나의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분기하기 위해 설치된 분기기의 방향을 변환시키는 장치.
- 4)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선로전환기가 강설시 원활히 동작할 수 있도록 설치한 눈녹임 장치.
- 5) (선로전환기) 밀착검지기: 선로전환기를 이용해 분기기 방향을 변환을 위해 레일을 이동 시, 이동된 레일이 정상적으로 전환되어, 선로가 밀착되었는지 확인하는 장치
- 6) 건널목 안전설비: 이용자가 철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건널목에 설치하는 설비(경보기, 차단기, 선로상의 지장물검지장치, 분석장치 등)

## 탕평인사로 철피아 인식 불식

### - 건설·기술 직렬의 밥그릇 깨고 혁신적 '직렬파괴' 시작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지난달 18일 공단의 핵심보직이자 선임직위인 건설계획처장을 통상 철도학과 출신 토목직으로 배치하던 관행을 깨고 비철도학과 출신의 사무직을 앉히는 특단의 대책을 포함한 탕평인사를 통해 철도납품 비리 등의 원인으로 거론 돼온 철도학과 출신의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 철피아 인식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현재 공단 부장이상 간부 중 철도사업의 핵심인 토목직은 철도학과 출신이 70%(철도대 45%, 철도고 25%), 전기직의 경우 78%(철도대 28%, 철도고 50%)로 건설·기술 등 특정부서에 집중돼 있어 비리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외부에 인식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장 이상 직위에 대해 부서별 철도학과 출신 비율을 50%이하로 낮추고 철도고 또는 철도대 출신이 직속 상하관계에 같이 배치되지 않도록 지휘관계상의 교차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이번 간부직 인사에 이어 12월 초에는 차장이하 직원에 대한 2단계 탕평인사를 통해 연말까지 철도학과 출신의 부서별 편중을 대폭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청렴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7월에는 「철도신뢰회복 미래발전 T/F」를 설치, 32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 중에 있으며 임원을 포함한 부장이상 간부 직원 203명이 두 차례에 나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입교하여 기관 맞춤형 청렴교육을 받았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단 전 분야를 대상으로 '맞춤형 제도개선 건설탕'을 의뢰해 제3자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굴, 업무처리 절차, 제 규정 등을 연말까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향후 학연이나 지연 등을 통한 줄서기나 인사 청탁을 철저히 배제하고 승진과 주요보직 발탁은 청렴성에 중점을 두고 성과와 능력을 충분히 검증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재개발처 관계자는 "이번 인사혁신이 그동안 불명예스러운 꼬리표 같았던 '철피아'라는 오명을 벗고, 청렴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철도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력직 직원 공개채용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력직 직원 공개채용**

국·내외 철도건설·시설관리를 통해 국민교통편의 증진과 철도강국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합니다.

공개모집 바로가기 →

- 0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영문에디터(통·번역)
- 02 전형절차  
1차: 서류심사 및 인적성 검사, 2차: 면접심사
- 03 지원서 접수  
2014.11.25(화)10:00 ~ 2014.12.4(목)18:00까지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kriet.career.co.kr)  
On-line 접수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신규사업개발, 해외 사업 진출, 구분회계제도 도입 등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법무·회계·세무·해외사업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직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사무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영문에디터(통·번역) 경력직으로 원서접수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인적성 검사 포함) 및 면접을 거쳐 2014년 12월말 임용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는 관련 분야 자격 및 경력 보유자이며 영문에디터는 국내 통번역대학원 영어전공 졸업자로 공인어학성적 TOEIC 900점, TOEFL IBT 105점, TEPS 766점 이상, 통·번역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이다.

채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kriet.career.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영일 이사장은 "철도산업은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이자 향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 사업을 함께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